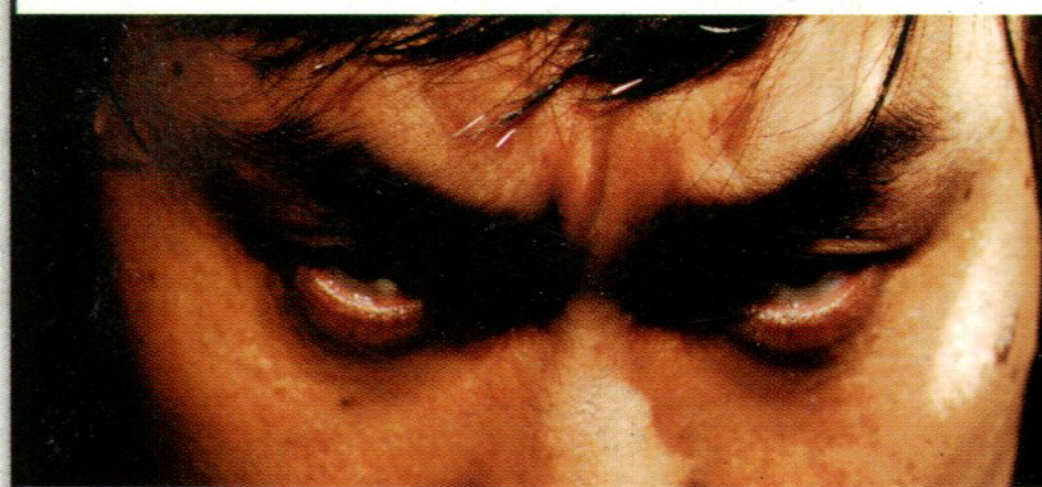


부두연극단 해외 최신연극 시리즈 NO.1 / 액터스 소극장 재개관 1주년 기념공연 NO.3 / 무대지원사업 선정작 / 사랑티켓 참가작



에이즈로 사망한, 사무엘 베케트 이후
최고의 현대 극작가로 추앙받는 콜테스의 대표작.
혼란스러운 21세기 문명의 풍경

“우리는 모두 잠재적 살인자들이야!”

제작 부두연극단

- 베르나르 마리 콜테스
- 재구성 및 연출 이성규

殺入者들

(원제 : 로베르토 주코)



■ 조연출 변자영 ■ 음악 이세호 ■ 출연 이길 이수정 안성혜 최명숙 김영림 김태훈 정주빈 최현경 박미경 구미석 김수수

■ 공연일시 - 2006년 10월 1일 ~ 22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6시. 추석연휴 및 월요일 공연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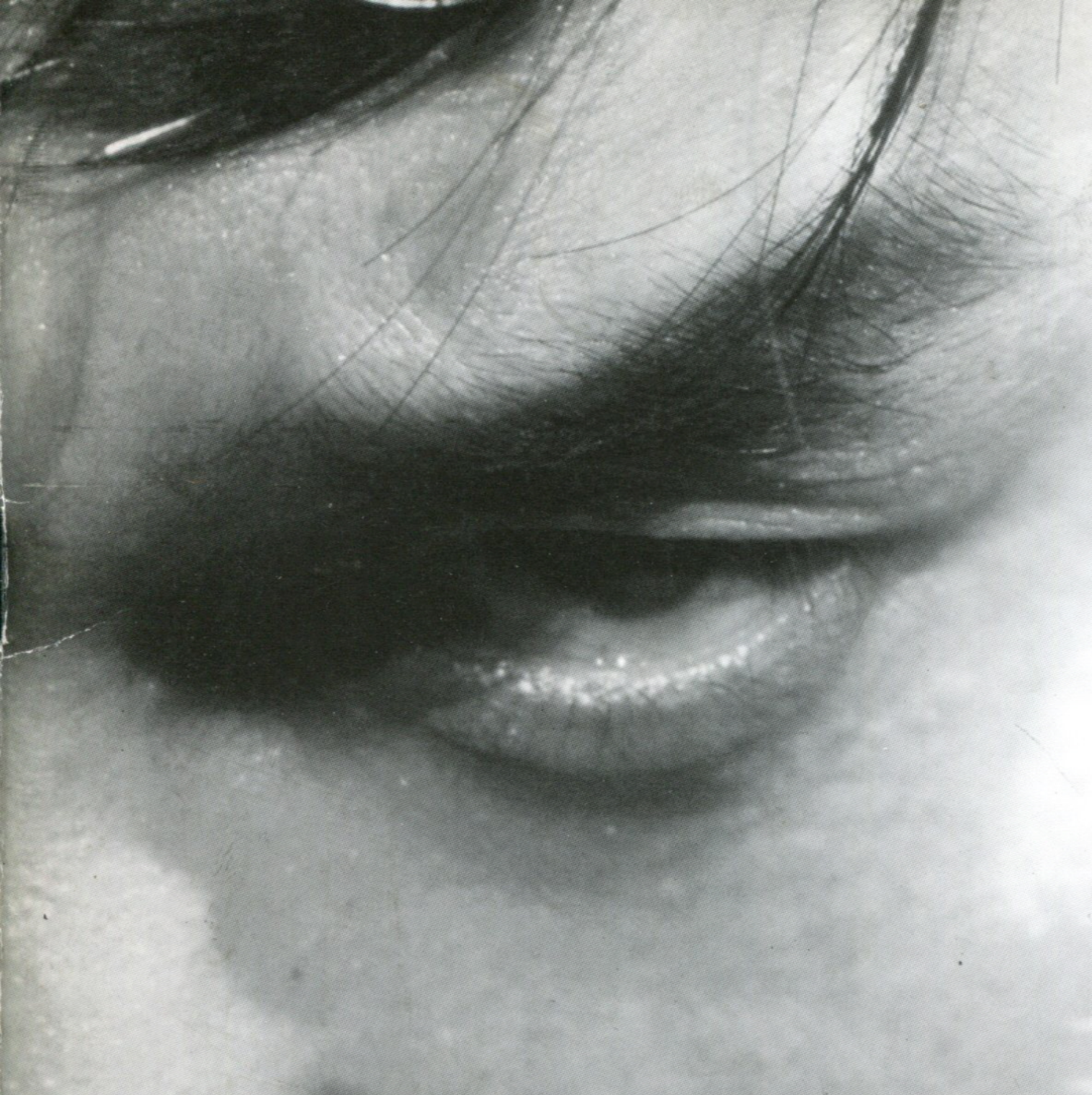
■ 공연장소 - 액터스 소극장

(남천동 KBS방송국 맞은편 하이마트 뒤)

■ 특별후원 -  프랑스문화원

■ 문의처 : 611-6616 / 018-740-3574 ■ 사랑티켓(부산은행 각 지점 구입가능)을 구입하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가능합니다.

■ 예 매 : 티켓 BOX <http://www.ticket-box.co> 티켓 365(1588-2528) <http://www.ticket365.co.kr> 다음카페 cafe.daum.net/actorsplay 전화예매 가능



殺人者들

액터스 소극장 재개관 1주년 기념공연 시리즈 No.3
해외 최신연극 시리즈 No.1


(원제: 로베르토 주코)

- 공연일시 - 2006년 10월 1일 ~ 22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6시. 추석연휴 및 월요일 공연없음.
- 공연장소 - 액터스 소극장 (남천동 KBS방송국 맞은편 하이마트 뒤)
- 제작 - 부두연극단
- 작 - 베르나르 마리 콜테스
- 재구성 및 연출 - 이성규

액터스 소극장 재개관 1주년 기념공연 시리즈 No.4
부두연극단 20주년 앵콜 레파토리 공연

에쿠우스

(EQUUS)

- 
- 공연일시 - 2006년 11월 1일 ~ 19일
평일 오후 8시. 토.일 3시, 6시. 월요일 공연없음.
 - 공연장소 - 액터스 소극장 (남천동 KBS방송국 맞은편 하이마트 뒤)
 - 제작 - 부두연극단
 - 작 - 피터 셰퍼
 - 재구성 및 연출 - 이성규

殺人者들

액터스 소극장 재개관 1주년 기념공연 시리즈 No.3

해외 최신연극 시리즈 No.1

공연개요 <공연단체 부두연극단>

STAFF

원 작 베르나르 마리 콜테스
재구성 및 연출 이 성 규
조 연 출 변 자 영
기 획 박 혜 인, 강 경 희
무 대 감 독 최 성 우
음 악 감 독 이 세 호
조 명 디 자 인 김 철 현
무 대 장 치 최 성 우

CAST

김 태 훈 주코 역
이 길 신사, 형사, 건장한남자, 한남자, 여자아이 아버지 역
이 수정 주코 어머니 역
안 성 혜 여자아이 언니 역
김 영 림 우아한 부인 역
정 주 빈 여자아이 오빠, 남자 역
최 현 경 창녀, 여자 역
최 명 숙 여자아이 어머니 역
박 미 경 여자아이 역
구 미 석 간수2, 형사, 포주, 경찰, 경찰2 역
김 수 수 간수1, 경찰1, 파출소장, 아이 역

기획의도

부산연극은 잠재력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으로부터 종종 변방연극으로 취급당하곤 했다. 그것은 아마도 세계연극의 흐름을 흡수하지 못하고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부두연극단은 세계 신경향에 속하는 연극들을 시리즈로 엮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첫번째 시리즈인 <살인자들>은 1980년대 이후 프랑스를 중심으로 대두한 '일상극' 계열 작가군이면서도 그들과 조금 다른 경향을 띄었던 베르나르 마리 콜테스의 작품이다.

대화보다는 내면의 독백을, 행동보다는 이미지를 중시하는 이번연극은 극 내용의 충격성 외에도 여러가지 형식적인 새로움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극단의 창조성을 넓히고 매니아 관객들에게 새로운 연극적 즐거움을 주기 위한 시도로 시리즈 물로 계속 공연할 예정이다.

작품안내

<살인자들>은 종말론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의 무의식을 반영하는 작품이다.

콜테스는 작품 속에서 현대사회를 단절과 소외, 의혹, 불안 등의 통제 불능의 사회이며 일상 속에 다양한 종류의 폭력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로베르토 주코는 '수코'라는 실제 인물의 살인사건을 모델로 삼은 작품이다.

'수코'는 14살에 부모를 죽이고 정신병자로 판단되어 오랜 치료 후 완치가 되었다고 판명, 퇴원을 하였으나 그 뒤로 연쇄살인을 하여 감옥에 수감되어 비닐봉지를 쓴 채 감옥에서 자살을 한 인물이다.

이 '수코'라는 실존 인물을 콜테스가 우연히 지하철역에서 범죄수배 몽타주를 보고 난 후 영감을 얻어 집필하였으나 표면적인 인물만을 차용했을 뿐, 내용면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극은 아버지를 살해한 후 수감된 주코가 감옥을 탈출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시 집을 찾아가 어머니를 죽인 후 형사, 인질 등을 죽인 연속살인범으로 재수감된 주코가 재 탈주를 시도하다가 감옥의 지붕에서 추락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콜테스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고독하고 소외된 개개인의 모습을 일상적 말투 대신 수사적이고 다분히 인위적이며 문학적 언어를 사용하여 현대인들의 심성에 내재하고 있는 수많은 폭력의 이미지를 주코와 다른 주변 인물의 이야기로 승화시키고 있다.

<살인자들>이 콜테스의 작품 중 가장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주코의 살인 동기가 극을 통하여 밝혀지지 않으며, 작가는 연쇄 살인범인 주인공에 대한 어떠한 도덕적 판단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콜테스는 살인자 "수코"를 "주코"로 변형시키며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한 현대인의 삶을 하나의 역설적인 범죄 신화로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 김태훈 쥬코역

■ 이길 신사, 형사, 건장한남자, 한남자,
여자아이 아버지역

■ 이수정 쥬코 어머니역



■ 안성혜 여자아이 언니역

■ 김영림 우아한 부인역

살인자들 출연진



■ 정주빈 여자아이 오빠, 남자역



■ 최현경 창녀, 여자역



■ 최명숙 여자아이 어머니역



■ 박미경 여자아이역



■ 구미석 간수2, 형사, 포주, 경찰, 경찰2 역



■ 김수수 간수1, 경찰1, 파출소장 아이역